2001년 전여대협 자주교류 계획서

1. 들어가며
2001년 자주통일의 새세기가 밝은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한손에 불어쥐고 또 한손엔 3천오백만 여성민중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여야할 2001년에 청년여학도의 자주교류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여대생이 실질적으로 만나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2001년 전여대협 자주교류의 실질적 성사로 조국통일의 큰 횃불을 안아옵시다.

2. 자주교류에 대한 교양자료
=>별첨자료1

3. 2001년 자주교류의 의의와 중요성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데 여성들이 앞장서자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뜻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개개인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민족의 뜻과 이익을 앞자리에 놓고 통일하지만, 누가 대신하여 해줄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합쳐 통일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지난 5년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 과정에서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과정은 곧 통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우리 민족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자들,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각계 시민단체, 종교인 등이 모두 통일을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단체들에서도 미흡하지만 계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진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만 우리 민족은 지금 바라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과 북의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자신의 국익의 손해로 이어지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전전긍긍 어떻게 하면 통일을 막아볼까 난리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자기 나라 무기도 많이 팔 수 있고, 우리 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힘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한반도 화해와 협력, 통일의 분위기를 막아보고자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존갓 북을 협박이 남과 서이가 안좋아지도록 이간질합니다. 3연합훈련 진압규명과 시점 보상은 안중에도 없고 주한미군 주둔의 공백한 명분을 되새깁니다.
일본 또한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아픈지 자신이 저지른 과거도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장을 놓으려고 안달입니다. 명백한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조차 부정하며 왜곡하고 감추려들고 있습니다.
통일론 나라에서는 반공도 전정의협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분단을 근거로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은 민족 전체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통일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대결과 전쟁의 역사로 되꾸어 놓으려 합니다. 동족을 적이라해야 주적론을 펴는 이도 있고, 국가보안법 철폐는 죽어도 안된다고 우기며, 심지 정상회담을 막아보고자 테러위협도 불사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50만 여학우가 모두 통일의 주인이 되자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훼방과 억지를 뒤로하고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런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청년학생들이 해야 할 몫이 크다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직접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갈 젊은 청년세대이기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분단으로 인해 더욱더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가 바로 여성들이니만큼 50만 여학우가 통일을 이루는 데 해야할 몫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1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의 원칙을 지키며, 통일의 방도에서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기획하는 일까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문제에서부터 통일을 반대하고 무력하거나,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설득하고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일들은 한마디로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나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행이 원만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곧 통일입니다.
자주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목적적인 사업입니다. 공동선언의 1항, 전민족이 전분야에서 고루협력을 도모하자는 것 우리 청년 여대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자주교류입니다.
과거 자주교류 사업이 처음 제기된 이래 국가보안법과 공안당국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이제는 통일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교류가 몇몇 사람의 특별이 아니라 학우들 전체가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울타리는 주체의 비좁도를 탓하기 전에 학우들의 힘으로 학우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배움으로 단결되어야 합니다. 학우이 통일의 주인이 되어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자주교류 사업에 공범적한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안팎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민족의 요구대로 자주교류 사업을 폭넓고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머지않은 해에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삼천 오백만 여성민중이 손을 맞잡는 그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해외가 함께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하자.
여학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한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의 국제법정 성과를 이어 이제는 실질적 사죄배상을 이루고 진상규명을 받아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해결투쟁은 반쪽자리의 투쟁밖에 되지않습니다. 분단이 되기전 우리 겨레가 당했던 민족적 수난이었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겨레가 함께할 때만이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6.15남북 공동선언에 명시된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민족단결이 가장 큰 전제로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해결해 나가고 그길 조국통일의 기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4. 2001년 자주교류의 목표
1)50만 여학우가 통일투쟁의 주체로 서자
자주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총여학생회 간부 몇몇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운동은 위에서 내려먼 아래서 복종하는 사무적인 회사가 아니듯 전체 여학우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을 때 바로 진정한 자주교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 여학우 하명한명이 '내가 나서야 통일이 되겠구나'라는 의지와 결의로 나서야 것입니다. 이러한 여학우들의 힘으로 자주교류를 성사시키고 그 힘으로 더욱더 여학생회를 강화,발전시키야 것입니다.
2)남과 북 해외의 여대생의 만남으로 자주교류 실질적 성사를 꾀 이루자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후 민족의 자주의식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예전 같은 자주교류의 방법보다는 합법적 통로를 이용하면서 대중적인 자주교류로 만들어가야합니다. 남과 북 해외여대생이 설지로 손맞잡고 부둥켜안으며 조국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자주교류의 실질적 성사는 이루어진 입니다.
3)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선봉에 서자
자주교류는 단순히 만나고 좋아하고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대생들의 자주교류를 성사시킴으로 이 민중들이 반공반북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하고 6.15남북공동선언에도 최선봉에서 지지,이행투쟁 하여야할 것입니다.
4)3차연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실제 해결을 가져오자.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실제 해결을 가져와야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남만으로는 완전 해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단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문제이고 또한 민족대단의 의의를 가지고 3차연대로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가 함께 했을 때만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3연대 자주교류를 성사시킴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가지올 수 있어야 합니다.
5)범청학련,범민련을 중심으로 통일투쟁하자
통일투쟁의 구심은 범민련입니다. 자주교류를 성사시킴으로서 여학생회로의 성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 통일투쟁의 흐름에도 함께하여 범청학련을 강화하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통일단결하여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5. 2001년 자주교류의 의식화 과제 및 방도
-의식화 내용
:자주교류 교양자료내용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자
-방도 : 정기적인 유인물을 발간합니다.
자주교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주교류 내용을 알려주는 이메일 보내기를 합니다.
정기적인 선전을 진행합니다 - 총여학생회 전용선전판을 설치하여 매주 1회 선전을 진행합니다. (선전내용 : 설문조사 내용보고, 자주교류 상황판, 신이북 여성바로알기, 학우의견란, 학우질문란 ,스티커 설문자보, 화살표 따라가기(당신의 이북지식은 어느정도?라는 형태로 OX를 따라가면서 이북지식지수가 나오는 것))
강의실 선전을 진행합니다 .

6. 2001년 자주교류의 조직화 과제 및 방도
-방북단을 모집하자
학교차원
:학교차원의 자주교류 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방북단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몇 명정도 모집할 것인가 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태-전여대협 차원의 방북단으로만 고민, 00대학 총여학생회 방북추진단 00명 모집, 총학생회 방북추진단 여학생대표단 00명 모집등으로

전여대협 북녘위안소답사 대학별 2인 모집-핵심사업에서 구체적으로

:1차 방북단 모집, 2차 방북단 모집등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모집해 들어갑니다. 1차 방북단은 일군들과 주변학우들을 중심으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선전해 들어가면서 다시금 대대적인 모집을 실시합니다. 2차 방북단이 실제 방북 승인실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방북단 모집 신청서의 예시>
1. 여학생회 자주교류 사업계획서를 참부합니다.
2. 학번, 소속, 이름, 연락처 (핸드폰, 자택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3. 방북 사유서
4. 자주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
5. 기타
방북단 교양학교를 진행합니다.
방북단을 중심으로 동아학교를 진행하며, 방북단에게는 이메일로 계속해서 자주교류 추진상황을 알리주고 각종행사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성문제와 여학생회 내용을 깊이 교양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북 여대생에게 엽서쓰기, 메시지기.
-선물주고받기 사업
-모의 자주교류 성사작
시기: 대동제나 대중사업시에 모의로 자주교류 성사작을 합니다.
조직방동 : 단과대 여학생회, 과여학생회/부,소모임등을 조직하여 진행합니다.
목표 : 대동제에 참여하는 학우들이 이북여대생으로 가정해서 나오는 학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 만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 이남의 여대생과 이북의 여대생이 자주교류를 하기위해 토론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내용을 담습니다.
-진보교수연대단체가 함께하는 여성자주교류 토론회 개최
-이북 여성문제관련 영화제(?)

시기 : 정기적으로 매달 1회 또는 대동제에 진행합니다.
목표 : 이북 여성문제관련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이북에 대해 더 자세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실질 자주교류의 성사에 필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 이북 여성문제관련 영화는 따로 없는 실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성문제관련한 장면이나 이북에서의 연애 그리고 연애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영화-도시처녀 시집와요, 마을에 드는 정신,

7. 핵심사업 → 러고교류,
-전여대협 북녘위안소답사
범청학련 차원의 2차 북녘유적답사의 형태로 진행할 고민입니다.
-대학별 자주교류사업
범성자주 ~~[illegible]~~ 사전답사, 의미 부여 방법,
의의와 목표 : 총학생회만이 아니라 학교의 여성학관련 교수나 여성단체분들과 함께 6.15공동선언 지,이행의 분위기를 조성시킨다.
내용 : 토론자를 초대한다
여성이 6.15공동선언 지지이행에 어떻게 나설것인가
여성들의 자주교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선물주기 사업
의의와 목표 : 낮은 단계의 자주교류이지만 대중적 흐름을 모아낸다.
실제적 방북을 만들어가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내용 : 학우들로부터 이북여대생에게 주고싶은 선물 한가지씩을 엽서와 함께 받는다.
이북에 전달한다.
이북에서 감사 답변을 요청한다.
학우들에게 공개하면서 방북단 모집으로 조직화한다.

8. 자주교류 시기별 흐름 → How?
~~3월 28일 1시기 대학별 추비마련, 계획 마련, 설문조사 진행~~
~~5월 28일 2시기 공동투쟁,자주교류 합의, 학우들 의식화, 다양한 여건주성, 방북단 모집대상~~
~~6월 15일 3시기 6.15-8.15시기 행사 및 방북단 대중적 모집, 방북 신청~~
~~8월 15일 4시기 다양한 의식화와 함께 방북 준비 및 1차 방북기간~~
~~10월 3일 5시기 다양한 의식화와 함께 방북 준비 및 2차 방북기간~~

별첨자료1 → 더 남북해외 하나 되자

-자주교류 일반적의미, 원칙, 내용, 관점자세

1. 자주교류! 그것이 알고 싶다.

1) 남과 북이 만나면 곧, 통일입니다.

- 자주교류는 바로 남과 북의 만남입니다.

조국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은 채 외세와 극일적자주세력에 의해 조국은 분단되었습니다. 그 분단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하고, 참으로 감당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분단의 골은 깊어, 정책의 무게와 같이 무겁고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조차 어려운 분단이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분단의 골이 점점 깊어질수록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서로 만날 때, 그것은 너무나 쉽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같은 말, 같은 핏줄,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강동정바우>에서처럼 남과 북이 서로 만나게 되자 지내고, 놀고,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너무도 자연스럽 상상했던 북한의 이 남과 북의 만남으로 너무도 쿠컨고, 어색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곧 민족의 대단결이, 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주교류는 바로 남과 북의 만남으로 가로막힌 통일의 문을 여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2) 우리 민족은 앞으로 머지 않은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주교류는 통일 조국의 미래를 남과 북이 함께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남과 북은 반세기 갈라져 살아오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통일된 조국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300 년 따로 떨어져 살던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도, 미리 가정의 미래를 꾸려가기 위해 이야기 하듯, 남과 북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통일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통일된 나라의 헌법은 어떠해야 할지, 국가는 무엇을 므로, 화폐는 무엇을 쓰게 될지 서로 만나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 자체만 놓고도 통일의 방도도 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학생은 통일된 조국의 주역이며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일차적인 의미만 있지만, 통일된 사회의 주역인 기성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데 까닭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대학생들은 다양 통일된 사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각자의 전공영역에서 통일조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통일된 사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통일시대의 기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자주교류는 남과 북이, 특히 청년학생들이 미리 만나 통일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긴요한 사업입니다.

-전여대협 자료 역사

전여대협 자주교류 투쟁의 역사

전여대협 자주교류 역사는 전대협-한총련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기층 학교단위의 확발한 교류보다 지역여대협이나 전여대협등 중앙의 고민과 결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자주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사안마련을 해택하여야 한는데 내용마련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간 남과 북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상어하기도 하였고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단위가 부재한 것도 자주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데 있어 나서는 장애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 불어 자주교류라는 것은 9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극심한 탄압이 직접적으로 들어왔기에 진행하더라도 아주 극비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95년에서 96년으로 이어지면서 2기 전여대협을 세워내는 과정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생점부쟁으로 결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남과 북, 해외의 공동투쟁을 고민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외낙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았기에 광범위한 대중의 보위속에서 자주교류를 통한 해결투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여대협의 자주교류투쟁의 대중선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6년 상반기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이북학생회의 여학생 조직건설을 준비하는등의 성과를 가지고 남과 북,해외가 함께 결의를 높혀내는 과정이 있었고 이후 8월 연대항쟁이 일어나면서 무산되었던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주교류 사업에대한 고민보다 연대항쟁 이후 광폭하게 들어온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재개된 자주교류의 다양한 제안에 여학단위의 고유한 사안마련에대한 고민과 주체부족등의 이유로 자주교류가 확발히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다시 미일체 군국주의 부화음모 저지에 맞서 투쟁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다시 핵심투쟁으로 상정하면서 자주교류를 통한 민족대단결 의식고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에도 그리는 조국의 자주통일!

너무나 오랜동안 서로의 사상과 정견이 다른 상황에서 떨어져 살았기에 일방의 생각과 의사만 수상해서는 통일을 전정으로 원한다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사상과 정견을 인정하는속에서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55년이 넘게 떨어져 있으면서 변질되었던 민족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 또하나의 조국,민족에 대해서는 민족대단결 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에 자주교류를 통한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 투쟁을 전여대협은 일본군'위안부'라는 우리민족의 문제로 시작하여 왔던 것입니다.

-신이북여성바로알기

:인터넷사이트

:책소개

조선여성들의 사회적역할

(평양 크림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사회의 큰 몫을 맡고있다.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정사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각급주권기관에서 대의원으로 사업 하는 여성들은 전체 대의원수의 20.1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인민경제 로력구성에서 여성비률은 거의 50프로나 된다.

특히 교육, 문화, 보건 부문과 상업류통, 린의봉사부문, 방직, 일용, 식료가공 부문에서 여성들이 노는 역할은 대히 크다. 여성들로만 운영되는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거관들이 수다하며 많은 여성들이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해 있다. 국가는 모든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일할수 있는 조건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근로여성들의 도동생활은 그 단적실례로 된다.

70만 그. 500여명밖에안되는 로동자 이 공장은 나라의 이름 있는 천연단거지의 하나이다. 현재 공장은 종업원주의 구조로써 당하는 여성로력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공장에는 큰 20개에 달하는 탁아소, 유치원이 있고 아동병동과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유치원 등등이 구건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소와 병원, 상점, 발공장 등 온갖 린의봉사시설들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어린이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따로 조직된 60여개의 대가아머니작업반에서 국가의 많은 추가적혜택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EBS '육아일기'…평양의 육아상황 소개

북한은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까. 평양에도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의 열풍이 있을까.

매주 토요일 초보엄마들을 위한 육아법을 소개해온 EBS의 '육아일기' (오전 9시20분)는 24일 최근 남북린이 이해동무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병호 한양대교수의 비디오에 담긴 평양의 육아법을 소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가에서 육아를 책임진다. 평양의 탁아소는 전문적 여성들을 위해 임요일부터 요일 오전까지 4세이하 어린이들의 숙식은 물론 유아교육까지 맡아준다. 어린이들의 위생을 위해 교사는 물 방문자들도 의무적으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는 모습이 선선하다.

이들 주(평)탁아소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세 미만은 '젖떼반' 이라고도 불리는 '낮은 반' 에서, 4세 이하는 '높은 반'에서 별도의 학습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주 평양시내 주요 건축물 퍼즐 맞추기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 모형 맞추기 등으로 이데올기 교육과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조기 영재교육이 중요시 되기는 서울과 마찬가지. 예체능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 유치원인 경성유치원서는 인민학교 입학연령(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발레 합장 악기 등의 영재조기교육을 실시한다.

이곳에서 만난 다섯 살짜리 남자어린이는 고난도의 발레동작을 쉽게없이 반복해 탄복을 자아낸다.

일신 9개월째인 강영주 PD는 "북한어린이들은 겁탄생활에 익숙하다보니 우리 아이들보다 주의력도 높고 동도 절도가 넘쳐 어색하게 비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의 극성스런 사교육이 오히려 이상할 것" 이라며 "앞 우리 아기들과 함께 어울릴 친구를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지켜봐달라" 고 주문했다.

1. 자주교류투쟁이란 무엇인가?

자주교류 투쟁의 원론적 해설.

자주교류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교류라는 의미는 서로간의 만남을 말한다. 친구들간의 만남, 이웃간의 왕래, 여기에서는 분단의 아픔 겪고있는 남과 북 해외의 동포 청년학생들간의 왕래와 만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남을 어떠한 만남의 되어야 하는가? 바로 자주적이란 날말이 붙는 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조국통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북 해외동포들이 민족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분단원인과 분단시대의 모순들을 극복하는 속에서 만난다 것이다.

바로 자주교류란 분단의 원인과 분단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분단의 원인은 외세에 의하여 민족 자주권이 상실된 것, 즉 1945년 조국광복과 함께 들어온 미군들은 자국이해관계에 의해 이남에 주둔하였고, 한반도를 둘로 갈라 이남만을 자국의 수중에 넣으며 조국을 둘로 갈라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분단시대의 심화는 해방 후 5년간 이남 민중들의 자주적으로 조국통일과 하나의 정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승만 일당이 탄압하면서 깊어졌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분단의 모순들이 첨예화된다. 이러 모순들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외세에 의하여 조작, 강요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갈라낸 독재정권은 그후 50년간 국민들의 의식에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힘을 키울었다.

7천만 겨레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속에서 서로의 자주적인 의사와 이해를 모아나갈 수 있는 것이 자주교류 투쟁뿐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기본적인 민간교류가 있지만 이는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성사 가능성과 폭이 정해서 있다. 하지만 자주교류는 그 폭과 내용이 7천만 겨레를 다 포괄하는 투쟁이기에 조국통일에 주체로의 자기 역할 지향을 밝히는 속에서 각 계급, 계층들이 자기들의 처지와 설정에 맞게 교류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하기 조국통일에서 주체인 7천만 겨레가 모두다 자주교류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조국통일을 향 각각의 방질을과 공동의 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력한 투쟁이 바로 자주교류인 것이다.

하기에 자주교류 투쟁이 전민족적인 관점으로 전개되는 이유이다.

3) 민족의 연대와 연합을 높여내면서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자주교류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 분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만남이 이려운 속에서 서로의 원지를 교환하고 서로가 공동의 내용으로 토론하고 공동의 행동을 하면서 민족의 단일한 행동과 입장을 모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모순 속에서 반만년 단일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 우수성이 훼손되었으며 민족적 공성이 유린되는 속에서 같은 이해와 입장을 갖는 것 그리고 민족적 공통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자주교류투쟁은 청년학생의 학문적 교류이든 체육교류이든 그리고 민족의 중차대한 문제든 서로의 입장과 이를 넘어서서 공동의 입장과 실천을 내오는 속에서 민족의 연대와 연합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민족이 하나이라는 것, 우리 민족을 갈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듯이 하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7천만 겨레가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자주교류 투쟁은 남과 북이 연대와 연합을 높여내는 속에서 통일로의 지향을 밝히게에 조국통일으로 하지 않는 세력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탄압을 동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민족적 단만이 조국통일의 주석을 세워낼 수 있다라는 것을 투쟁속에서 확인하게 된다.

즉 민족이 대단결을 할 때만이 조국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투쟁이에 자주교류 투쟁은 전민족적인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4) 정권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교류정책과는 정적으로 다른 투쟁이기 때문이다.(정권교류와의 차이점조)

정권의 교류는 선벽교류, 장구단일화이다.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것이던가, 정권을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 단체 혹은 개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권만이 교류에 대해서 힘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것이던가, 아니면 일회적인 것을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가지가고 있다.

정권은 교류사업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로의 지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서로 분리하여 어느 한 쪽을 제압하기 것이 기본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러한 분단의 조건, 분열현상을 통일조건, 역제의 건설과 지배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에 자주교류를 통해서 그동안의 민족간의 단절의 구체,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전민족이 나갈 것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교류의 대상과 폭, 그리고 여러 방식에서 단체, 개인을 제한할 수 없으며 결적 나아가서 전개될 수 있다.

이것은 서로 교류를 하고자 하는, 쌍방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이러한 동한 민족적 발전을 기점 중심에 두기 이는 한쪽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또한 처음에는 낮은 수위에서 교류가 전개되지만 점차적으 조국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수위로의 그리고 전민족적인 교류로의 지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가장 중심은 7천만 겨레의 요구이고, 민족적 단합의 분제가 가장 교류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이다.

자주교류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원칙.

1) 조국통일에 복부하는 투쟁이이야 한다.

취운말이시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실제 조국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류는 아무런 의

도 없으며 정권이 전개하는 일반적인 교류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자유왕래와 전면교류가 가로막하고 탄압받는 속에서 이러한 교류는 오히려 분단의 골을 깊게 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결코 훼손되거나 놓쳐지말고 끊임없이 교류투쟁에서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

2) 선언, 선포 주체의 일회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자주교류 사업은 이제 의식의 확산을 넘어 이백만 청춘의 구체적인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대중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우들이 주인주체로 나서는 대중운동의 과정은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소중하며 사업의 성과가 이것에 기반하는 것은 명확하다. 순간의 고민이라 하더라도 차분하게 조급하지 않게 단위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자기 단위의 계획과 전망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연방제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남북해외의 합작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
조국통일은 이남만의 또는 이북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 남북 서로가 공동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이 조국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운동 역시 남북이 서로 함께 전개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공동의 투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개될 때 통일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자주교류투쟁도 조국통일운동의 한 영역이기에 어느 일방의 노력과 강요에 의해 전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함께 하는 속에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남북 합작투쟁의 관점을 돌어권 다는 것은 교류를 전개함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등 교류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은 남북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교류의 주체는 이남 또는 이북만이 아니며 남과 북 양자가 교류의 주체인 것이다. 하기에 이남만의 입장과 그리고 이남의 고민만으로 교류를 전개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이북의 입장에서도 교류에 대한 관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기에 남북해외 서로의 요구와 조건 설정에 부합하는 연방제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4)당단 통일정세에 부응, 조국통일운동의 요구에 입각하여야 하며 이를 부단히 높여가야 한다.
자주교류투쟁은 정권에서처럼 정세와는 무관한 내용을 제기함으로써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하는 '고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주교류투쟁은 정세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 부응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남과 북이 처한 정세를 돌파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나가며 이를 통해 조국통일의 밀거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되지 못하고 정세와는 무관한 교류를 전개한다면 끊임없는 반통일세력의 분단고착화음모로 인해 우리의 통일투쟁의 과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더불어 남과 북에 일정정도 성고를 남길 수 있겠지만 패배감만 안기는 투쟁이 될 것이다.

5)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분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자주교류투쟁의 형식중 하나인 관지교류는 법정확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이북과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사업과 방북사업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측(통일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할 때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 또한 자주교류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줄기차게 교류 우선론을 주장하면서 창구단일화 논리를 고수해왔다. 우리가 이북 학우들을 초청하거나 방북을 할 때 정부측 배제하고 우리들만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에서 초청내지 방북이 가능하기 위해 정부를 동하는 것은 창구단일화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우들의 힘과 지혜에 근거하여 교류의 내용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기에 이속에서 정부당국은 중간매개자의 역할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의 논리를 분쇄하기 위해서 초청과 방북사업을 준비하면서 정권의 반통일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깨닫고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튼튼히 확보해야 한다.
정권은 민간통일운동을 탄압, 주되게는 청년학생의 자주교류에 대해 창구단일화 논리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탄압을 퍼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과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청확련으로서의 창구단일화는 통일논의의 다원화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과 동시에 별적 교류가 아닌 범단적 교류투쟁으로 대중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여 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자주교류투쟁의 합법처성은 정권의 반통일 법, 제도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우들과 국민들에이이 자주교류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받아가고 있다. 합법처성은 여기에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인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생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현재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적은 미제와 반통일정권과 사대국정권이다.
미제는 '두개의 한국정책'과 더불어 미제의 전반도 간장고조, 전쟁책동에 놓아나면서 한반도 긴장격화를 화뿌리들도 바로 이들이다.
또한 모든 별적 제도적 반통일장치인 국가보안법으로 남북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가로막는 현상황에서 긴장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기는 불무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며 국반도의 평화정착이 실현되어 남북간의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왕래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 나갈 때만 조국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자주교류투쟁에 있어서 조국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하고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면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들이 자주교류로 해결가는 것이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것이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류는 조국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에 주장하는 단순교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남북이 함께 고민하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할 때만이 조국통일은 더 빨리 이루 수 있는 것이다.

기본원칙과 방도
-올해는 90년대 자주교류에서의 원칙과 방도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재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교류가 아닌 정치대화, 창구단일화가 아닌 창구다원화,소수가 아닌 대중의 원칙이 상조되었던 90년대의 칙과 방도들을 6.15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통일운동 주되게 진행되어오던 90년대와는 달리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 통일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높아진 관의 역할을 볼 때 관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성격과 대중성의 원칙을 유연하게 결합해 내어야 합니다.
과거 자주교류사업은 남북청년학생들의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거나 만나보자라는 차원의 교류가 그 밀접하게 대중사업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교류와 협력의 요구가 높아진만큼 자주교류사업을 계획하는 데서도 각 단위의 특성들을 살리는 것을 본으로 정세적 요구를 지향하고 밀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짜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이북에서 제안한 민족통일대회준비위원회 설립만남을 성사하기 위한 흐름으로 갖추어 가야합니다.
중앙과 단위의 자주교류들이 그 기간의 행사와 사업흐름에 결합이 되리라 예상이 되며 실천만남의 가능성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각 단위의 대중적 흐름들을 6.16~8.15 기간으로 집중시켜 나 합니다.
-자주교류 추진하는 각 단위들의 연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방해물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민협조라고는 하지만 통일부는 법청확련, 한총련의 이름을 걸고 자주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통일부 국은 달갑지 않을 것이고 개별단위들을 선별하는데서도 제한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주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각 학교단위와 단체들과의 상호연계와 연대를 강화해야합니다.

*별첨자료2.
-방북절차

1)자주교류 사업 추진 신청서 제출하기.

▶ 방북절차는 크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절차와 북한방문 승인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방북을 하거나 낮은 단계의 관지교류 등과 같은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주민접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신청서류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신원진술서(여권사진 2매),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대리신청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서류준비를 합니다.
신원진술서를 위해서 방북을 원하는 방북단을 대표로 모집합니다. 학생회실에서, 상의실 선전을 통해서 여학우들에게 방북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는 작성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위안소 답사내용, 학술교류 사업계획, 관지교류 사업계획, 해육대회 사업계획등의 여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15일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로 방북절차를 밟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므로 빠르면 6·15~8·15 민족통일운동 촉진기간에 자주교류를 실질적으로 성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학우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승인되지 않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알리고 승인될 수 있는 이후의 활동을 가시갑니다.(이후 계획 예측)

2) 방북절차

북한주민접촉 절차

* 본 자료에 대한에 문의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국교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교류·협력, 학술·예술, 체육, 관광 : 교류1과(☎720-2146)
- 종교, 언론·출판, 보건·환경 : 교류2과(☎725-5880)
- 교역, 수송, 통신 : 교류3과(☎726-7205)
- 경제협력사업 : 협력2과(☎738-7776)
- 사회문화협력사업 : 교류1과, 교류2과

☐ '접촉'의 개념
o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접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
-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편지·우편·FAX·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
* 북한국적 미소유자로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계 인사 등은 북한주민으로 간주

☐ 처리절차 흐름도

신 청 인 ··· 북한주민접촉 승인 신청
⬇
통 일 부 ··· 처리결과 통지 (필요시 안내교육실시)
⬇
신 청 인 ··· 북한주민접촉 (5일 이내 접촉 완료)
⬇
신 청 인 ··· 접촉결과보고 (통일부에 제출)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서류
o 북한주민접촉신청서

o 신원진술서(여권사진 2매)
o 접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리신청, 우편접수도 가능
☐ 승인 유효기간 : 3개월

북한방문 절차

☐ 처리절차 흐름도

신 청 인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
통 일 부 ··· 처리결과 통지
⬇
통 일 부 ··· 방북 안내교육 실시 (통일교육원)
⬇
통 일 부 ··· 방문증명서 발급
⬇
신 청 인 ··· 북한 방문
⬇
신 청 인 ··· 방문증명서 반납 및 방북결과보고 (통일부에 제출)

☐ 처리기간 : 20일
☐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여권사진 1매
- 북한측의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및 60일이상 복무을 필한자는 제외 한함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서류 (접촉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 대리신청, 우편접수도 가능
☐ 승인유효기간 : 최장 1년 (체육·주식팀과 승인된 경우 최장 3년)
재외국민(외국영주권자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한자 및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외국소재 외국법인에 취업중인 자에서 업무수행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북한을 경유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3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 제출(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별첨자료
- 자주교류가 갖는 의의 및 중요성(대학의 계획에 맞게)
- 학교별 자주교류 및 교민사업
- 주제와 새롭게 대한 고민